



어 버 이 수 령 님 을 그 리 워 하 는 인 민 의 마 을 만 경 대 고 향 집 으 로 끝 없 이 달 러 가 고 있 다

본사기자 장 청 일 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일 각 하

나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99돐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계속 강화발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각하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1년 4월 12일

디마스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국제 김일성기금 리사장,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소조직대표단, 뻬히쵸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사, 엘남사회주의공화국 공안상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국제김일성기금 리사회 서기장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비슈와나스리사장과 하리쉬 굴마리사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조니 혼리사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뻬헬 메사르브위협학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모스크바국립종합대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연구회대표단, 위팔리 폴리크리위협학을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자주련맹대표단, 우비쉬 까지 위베스타위협학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드미트리 모델 부위협학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대외관대장들이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

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뻬히쵸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알베르도 아나야 구메레레스조정사가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엘남사회주의공화국 공안상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엘남공안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메 홍 아 잉공안상이 1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9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9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 이끄시어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조국의 통성변명과 선군혁명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설레이고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붉은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탄생 99돐》이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 만세!》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

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혁명렬사유가족들, 로력혁신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제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 인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 일군협의회에 참가한 외국순방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또한 주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관단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었다.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강석주동지, 변영림동지, 홍석형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태중수동지, 김경해동지, 문경덕동지, 김락희동지, 주규창동지, 우동숙동지, 김창섭동지, 오극렬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 모범적인 일군들, 영웅들, 점진자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제일본조선인대표단 단장인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주석단에 앉았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같이 빛내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현을 기어이 실현해 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인리나소날》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엘남공안성 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4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엘남공안당 총서기인 베니 하스 엘남공안성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그는 엘남과 조선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공고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두 나라 보안기관들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여기에는 최중화 인민보안부 부부장 파 웰 당 조영 주 조 엘남사회주의공화국 림시대표대사가 참가하였다.

1 면에서 계속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시며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기치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수령님을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따라 승리떨치리라는 노래를 높이 부르며 일련단심 장군님의 총지한 동지로 삶을 이어가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총정의 세계를 귀감으로 삼고 투쟁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가장 귀중한 전위물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필승의 보검이다. 우리는 당대표자회 정신의 요구대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전당을 령도자와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결사판결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후손답게 창조하며 비약해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밑에 밀일 두 계국주의원탁자들을 쳐부시고 빈 리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운 영웅적 인민이다. 당과 수령, 시대와 력사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고 모든것을 아낌 없이 바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후손들의 투쟁기질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기어이 해내고야하는 불굴의 투쟁정신,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세계를 들었다놓는 담대한 기상, 모든 일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완전무결하게 해놓는 숭고한 미래관이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꼭 차넘쳐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군을 통하여 강성대국에로 폭풍쳐 나아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후손들의 창조본능을 다시 한번 독특히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생산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증산이자 인민생활향상이고 강성대국건설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당에 바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총정파에 국의 열정은 오늘의 생산돌격전에서 높이 발양되여야 한다. 우리는 자기 부문, 자기 혁명초소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말은 혁명파업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며 영웅적투쟁기풍과 건인민적인 총정사건으로 온 나라에 강성대국승리의 함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총화하는 올해에 누구나 천 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자를 끊 없이 가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점령해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릴 그날을 앞당겨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간곡한 유언이며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을 튼튼히 틀어쥐고 내외호전세력들의 반동일책들을 단호히 짓부셔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구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까지는 이제 한해가 남았다.
강성대국건설에서의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이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고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힘있게 떨치는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투쟁의 보람이 있고 영예가 남았다.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은 활력에 넘쳐 전진하고있으며 강성대국승리의 광장이 바야흐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가자.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오늘 우리들은 백두의 천축위인을 모시어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만방에 높이 펼쳐지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온 겨레의 조국통일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9돌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경사스러운 이날에 즈음하여 주제 빛나는 태양민족의 역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기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주석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선군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조국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우리 겨레가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민족의 명수, 만고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대동운의 날이며 우리 민족과 인류의 앞길에 평명하 미래를 열어놓는 력사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있어 우리 민족은 곡절많은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적존엄과 평등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지구촌의 중심에서 자주주의를 신구하며 복잡다단한 20세기를 영광스러운 김일성시기로 찬란히 수놓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는 이 세상 어느 위인도 지닐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근로민족의 자주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의 빛나는 한생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인류사상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제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우리 민족과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선군형편의 시련을 열어놓으시고 미일경제주의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 이끄시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었으며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성공적으로 명도하시어 이북땅에 자주, 자립, 자위요 위용명철이 가장 우월한 민족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셨습니다.

인민위원의 리념을 지니신 아버지주석님께서는 세계정지사에 류례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펼쳐주시어 이복사회의 일상생활을 이룩하시고 그 위력으로 새기적변혁을 창조하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가지까지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어 통일위업실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시고 통일과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세계자주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자주시대를 이끄시어 20세기를 대표하는 걸출한 위인, 회세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절대적인 경모와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제혁명위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도 혁명과 건설을 오직 아버지주석님의 사상과 뜻대로 전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명도로 우리 조국이 아버지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강성대국건설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주제위업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고있는 비찬 시기에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김일성조선의 성스러운 100년사를 총화하게 되는 류달리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정과 흥도의 한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주제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인류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주제사상을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며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새세상을 펼쳐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장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십니다.

인민위원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공창길과 농장길, 지하막장과 인민군초소들을 찾아 걸고걸으시며 마련해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은 오늘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의 데리없이 귀중한 토대로, 우리 인민의 무궁번영과 행복을 담보하는 만년재료로 길이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온 겨레의 마음들이 태양의 성지 만경대를 그려보는 숭엄한 이 시각, 우리들은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을 더 생각하고 걱정하시며 뜨거운 열혈의 정으로 제일동포들을 보살피시면서 온갖 배려를 다 들리추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뉘어넘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제일동포들에게 해방민족의 기쁨도, 주제조선의 당당한 공민의 존엄과 영예도, 총련을 무어주시어 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였던 긍지와 참된 삶도 안겨주시는 생명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일본 방방곡곡에 정연하게 꾸러진 총련조직들과 세상사람들이 경탄하는 민족교육의 화원, 이역방에서 반세가 너도덕 빌려온 애국애족활동의 꽃피마더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명도의 자국이 뜨겁게 어그러오니 정녕 우리 수령님은 주제 태양으로,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로 제일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한없는 은덕을 새겨면 새길수록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나는것은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완전무결하게 고수체승하시고 찬란히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분, 장군분을 누리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입니다.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이 닦쳐왔던 고난의 나날에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불변의 신념을 심어 주시고 무적필승의 선군명도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어 주제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실업적은 인류사상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평생달린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실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초장초강군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우리 조국은 일상생활의 정치사상강국,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군사강국,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세계를 굽어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고있으니 우리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련의 존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번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을 즈음하여 14일 해외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제일본조선인대표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제미동포연락회대표단,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제우스트랄리아동포연락회대표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만수대번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보내여온 꽃바구니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네팔공산당 (파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메히로 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 참가한 네 팔공산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씨. 피. 마이날리 네팔공산당 (파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알베르도 아나야 구에레스 메히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를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화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제 13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14일 제 13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제의 영원한 해설을 들으면서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손님들은 감사록에 글을 남겼다. 【조선중앙통신】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련 환 공연 진행

시어 이 땅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정을 반영한 대체로운 총동무들이 나왔다. 출연자들은 녀성독창 《수령님 사랑에 우리 행복 꽃피네》, 《수령님 몸가께 이 모시고싶어》, 무용 《따르는 마음》, 녀성독창 《김정일합회예술단, 제미조선인 예술단이 출연하였다.》



동 평양 대극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시어 이 땅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정을 반영한 대체로운 총동무들이 나왔다. 출연자들은 녀성독창 《수령님 사랑에 우리 행복 꽃피네》, 《수령님 몸가께 이 모시고싶어》, 무용 《따르는 마음》, 녀성독창 《김정일합회예술단, 제미조선인 예술단이 출연하였다.》

수도의 거리들에 꽃바다가 펼쳐졌다. 시당위원회와 수도의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과 시민들의 지성에 의하여 태양절을 맞으며 수도의 거리들에 꽃바다가 펼쳐졌다. 이 사업에서는 대성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만경대구역이 시적인 분위기를 띠었다. 대성구역과 중구역의 일군들

수도의 거리들에 꽃바다가 펼쳐졌다

수도의 거리들에 꽃바다가 펼쳐졌다. 시당위원회와 수도의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과 시민들의 지성에 의하여 태양절을 맞으며 수도의 거리들에 꽃바다가 펼쳐졌다. 이 사업에서는 대성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만경대구역이 시적인 분위기를 띠었다. 대성구역과 중구역의 일군들

특약기자 최수복

